

고1
공통국어1
미래엔

2026 고1 공통국어1 미래엔 | 3(1) 음운의 변동 기술

이 서적은 「저작권법」에 따라 보호됩니다. 본 자료의 무단 배포, 도용 시,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
예상 출제 유형

‘음운의 변동’ 단원에서는 음운 변동의 개념을 확인하거나 규정에 해당하는 예시를 고르는 문제, 예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음운 변동 현상에 대해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습니다. 교과서 내의 개념과 예시를 활용한 문제가 많았으나, 더 알아보기에 실려 있는 추가적인 음운 변동의 개념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예시를 활용할 수도 있으므로 주어지는 개념과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단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음운 변동 현상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. 이를 위해서는 각 음운 변동 현상의 개념과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1. 다음 중 <보기>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음운의 변동이 아닌 것은?

<보기>

어떤 음운이 환경에 따라 다르게 소리 나는 현상을 음운의 변동이라고 한다. 음운의 변동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.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, 두 음운이 합쳐져 하나의 새로운 음운이 되는 현상, 두 음운 사이에 새로운 음운이 생겨나는 현상, 원래 있던 음운 하나가 발음되지 않는 현상이 그것이다.

- ① 비음화 ② 구개음화
- ③ 유음화 ④ 된소리되기
- ⑤ 거센소리되기

2. 다음 중 우리말의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모음 탈락은 모음이 연이어 발음되는 것을 피하려는 현상이다.

- ②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예로 ‘같이’와 ‘꽃이’를 들 수 있다.
- ③ 두음 법칙은 한자음이 단어의 첫머리에 오지 않을 때는 나타나지 않는다.
- ④ ‘밥물’은 음운 변동의 결과 조음 위치는 바뀌지 않고 조음 방법만 바뀌는 현상이 일어난다.
- ⑤ 음운 변동은 어떤 음운이 환경에 따라 다르게 소리 나는 현상을 말한다.

3. 다음 중 <보기>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단어는?

<보기>

‘ㄴ’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‘ㄹ’의 영향을 받아 유음인 ‘ㄹ’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을 유음화라고 한다.

- ① 논리 ② 훈련 ③ 공권력
- ④ 칼날 ⑤ 물놀이

4. 다음 단어의 발음과 음운 변동 양상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	단어	발음	음운 변동 양상
①	듣는다	[든는다]	ㄷ+ㄴ → ㄴ+ㄴ
②	잡는	[잠는]	ㅂ+ㄴ → ㅁ+ㄴ
③	실내화	[실래화]	ㄹ+ㄴ → ㄹ+ㄹ
④	할는지	[할능지]	ㄴ+ㅈ → ㅇ+ㅈ
⑤	여닫이	[여다지]	ㄷ+ㅣ → ㅈ+ㅣ

5. ㉠~㉡의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<보기>

㉠앞마당
㉡광한루
㉢국밥
㉣역사
㉤담가

- ㉠은 비음화가 일어나며, 같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단어에는 ‘옷맵시’가 있다.
- ㉡은 유음화가 일어나며, 같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단어에는 ‘대관령’이 있다.
- ㉢은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며, 같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단어에는 ‘발달’이 있다.
- ㉣은 두음 법칙이 일어나며, 같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단어에는 ‘이별’이 있다.
- ㉤은 모음 탈락이 일어나며, 같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단어에는 ‘좋아’가 있다.

6. ㉠~㉡의 밑줄 친 부분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조건을 잘못 연결한 것은?

예 문	된소리되기가 나타나는 조건
㉠	받침 ‘ㄱ, ㄷ, ㅂ’ 뒤에 연결되는 ‘ㄱ, ㄷ, ㅂ, ㅅ, ㅈ’은 된소리로 발음한다.
㉡	어간의 받침 ‘ㄴ, ㄹ’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‘ㄱ, ㄷ, ㅅ, ㅈ’은 된소리로 발음한다.
㉢	한자어에서, ‘ㄹ’ 받침 뒤에 연결되는 ‘ㄷ, ㅅ, ㅈ’은 된소리로 발음한다.
㉣	관형사형 ‘-(으)ㄹ’ 뒤에 연결되는 ‘ㄱ, ㄷ, ㅂ, ㅅ, ㅈ’은 된소리로 발음한다.

- ㉠: 저녁 밥상이 꾸밈하다.
- ㉡: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.
- ㉢: 연습을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어.
- ㉣: 눈에 열정이 가득하다.
- ㉤: 힘들어서 더는 갈 수 없어.

7. <보기>의 예로 제시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단어는?

<보기>

표준 발음법 제4장 제12항

받침 ‘ㅎ’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.

1. ‘ㅎ(ㄴㅎ, ㄹㅎ)’ 뒤에 ‘ㄱ, ㄷ, ㅈ’이 결합되는 경우에는,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[ㅋ, ㅌ, ㅊ]으로 발음한다.

[붙임 1] 받침 ‘ㄱ(ㄷ), ㄷ, ㅂ(ㅃ), ㅈ(ㅉ)’이 뒤 음절 첫소리 ‘ㅎ’과 결합되는 경우에도, 역시 두 음을 합쳐서 [ㅋ, ㅌ, ㅊ, ㅊ]으로 발음한다.

- 잠가
- 밝히다
- 좁히다
- 넓히다
- 행복하다

8. <보기>의 음운 변동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<보기>

두 모음이 이어질 때 그중 한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을 모음 탈락이라고 한다.

(예 1) 약이 써서 삼킬 수가 없었다.
: 쓰- + -어서 → 써서

(예 2) 횡단보도 앞에 서 있어.
: 서- + -어 → 서

(예 3) 공을 저쪽으로 멀리 차.
: 차- + -아 → 차

- 음운 변동 현상 중 음운의 탈락에 해당하는군.
- ‘아프다’를 활용한 ‘아파서’는 (예 1)과 같은 변동이 일어나는 단어이군.
- ‘커다’를 활용한 ‘커도’와 (예 2)는 활용할 때 ‘ㄴ’가 하나 탈락하는군.
- ‘기쁘다’를 활용한 ‘기뻐’는 (예 3)과 동일한 모음 중 하나가 탈락하는군.
- (예 1), (예 2), (예 3)으로 보아 모음 탈락은 소리 나는 대로 쓰는군.

9. 다음의 단어에 공통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?

	단어	음운 변동
①	훈련, 신라	비음화
②	생겼는데, 꼭민지	유음화
③	해돋이, 쇠불이	구개음화
④	할 것을, 물상식	거센소리되기
⑤	파랗다, 싫다	된소리되기

10. <보기>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단어는?

<보기>
덮개 → [덥개] → [덥깨]

- ① 낮잠 ② 훌이불 ③ 반려 식물
④ 따뜻한 ⑤ 따라잡습니다

11. <보기>의 밑줄 친 부분의 예로 제시하기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<보기>
음운 변동은 교체, 탈락, 첨가, 축약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. '교체'는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이며, '탈락'은 원래 있던 음운 하나가 발음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. '첨가'는 두 음운 사이에 새로운 음운이 생겨나는 현상이고, '축약'은 두 개의 음운이 하나로 합쳐져 발음되는 현상을 가리킨다.

- ① 숨이불 ② 되어
③ 내복약 ④ 발이랑
⑤ 만형

12. <보기>를 참고할 때 다음 단어의 음운 변동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?

<보기>
우리말에는 ㉠비음화, ㉡된소리되기, ㉢거센소리되기, ㉣모음 탈락, ㉤음절의 끝소리 규칙, ㉥구개음화 등의 '음운 변동'이 있다. 이러한 음운 변동은 한 단어 안에서 한 번만 일어나기도 하고, 여러 차례 일어나기도 한다.

- ① '닭는[당는]'에는 ㉠과 ㉡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.
② '숯가마[숯까마]'에는 ㉢과 ㉣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.
③ '아파도[아파도]'에는 ㉤과 ㉥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.
④ '닫히다[다치다]'에는 ㉢과 ㉣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.
⑤ '깨끗하다[깨끄타다]'에는 ㉢과 ㉣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.

13. ㉠~㉣의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<보기>
• 나 지금 도서관 ㉠갈 건데[갈건데] 미리 준비해야 해.
• 나는 우리 집의 ㉡말이[마지]이다.
• 회장 선거를 앞둔 진수의 눈빛에 ㉢열정[열쟁]이 가득하다.
• 저녁 10시가 되면 가게 문을 ㉣닫는다[닫는다].
• 나는 주말에 ㉤집안일[지반닐]을 돕는다.

- ① ㉠은 어간의 받침 'ㄹ'이 뒤에 오는 어미의 첫소리 'ㄱ'과 결합하여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.
② ㉡은 끝소리 'ㄷ'이 모음 'ㅣ'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'ㅌ'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구개음

화가 일어난 경우라 할 수 있다.

- ③ ㉠은 한자어에서, 끝소리 ‘ㄹ’ 뒤의 ‘ㅈ’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.
- ④ ㉡은 끝소리 ‘ㄷ’이 뒤에 오는 비음 ‘ㄴ’의 영향으로 ‘ㄴ’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비음화가 일어난 경우라 할 수 있다.
- ⑤ ㉢은 합성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‘ㅣ’로 시작할 때 ‘ㄴ’ 소리가 첨가된 경우라 할 수 있다.

정답 및 해설

1. [정답] ⑤

음운 변동 현상 중에서 거센소리되기 현상은 두 음운이 합쳐져 하나의 새로운 음운이 되는 축약 현상에 해당한다.

①, ②, ③, ④는 모두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현상에 해당한다.

2. [정답] ②

‘같이’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[가치]로 발음하지만 ‘꽃이’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연음되어 [꼬치]로 발음한다.

① 모음 탈락의 개념에 해당한다.

③ 두음 법칙은 한자음이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만 나타나므로 적절하다.

④ ‘밥물’은 비음화가 일어나는 단어로, 비음화와 유음화는 조음 위치는 바뀌지 않고 조음 방법만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므로 적절하다.

⑤ 음운 변동의 개념에 해당한다.

3. [정답] ③

‘공권력’은 2음절 한자어 뒤에 ‘ㄹ’로 시작하는 한자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로 ‘ㄹ’이 ‘ㄴ’으로 바뀌어 [공권녁]으로 발음하므로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.

① 논리[놀리]: ㄴ + ㄹ → ㄹ + ㄹ

② 훈련[훈련]: ㄴ + ㄹ → ㄹ + ㄹ

④ 칼날[칼랄]: ㄹ + ㄴ → ㄹ + ㄹ

⑤ 물놀이[물로리]: ㄹ + ㄴ → ㄹ + ㄹ

4. [정답] ④

‘할는지’는 ‘할른지’로 발음하므로 ‘ㄹ+ㄴ → ㄹ+ㄹ’의 음운 변동 양상(유음화)이 나타난다.

①, ② 비음화가 일어나는 단어로, 발음과 음운 변동 양상이 적절하다.

③ 유음화가 일어나는 단어로, 발음과 음운 변동 양상이 적절하다.

⑤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단어로, 발음과 음운 변동

양상이 적절하다.

5. [정답] ⑤

‘담가’에서 ‘담’은 용언의 어간 ‘담그-’에 어미 ‘-아’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모음 ‘ㅡ’가 탈락한 것으로 모음 탈락 현상이 일어난다. 하지만, ‘좋아’는 [조아]로 발음하는 과정에서 ‘ㅎ’이 탈락한 자음 탈락이 일어난다.

① ㉠‘앞마당’은 비음화가 일어나 [암마당]으로 발음하며, ‘웃맵시’도 비음화가 일어나 [온맵씨]로 발음한다.

② ㉡‘광한루’는 유음화가 일어나 [광 : 할루]로 발음하며, ‘대관령’도 유음화가 일어나 [대 : 괄령]으로 발음한다.

③ ㉢‘국밥’은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[국빡]으로 발음하며, ‘발달’도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[발딸]로 발음한다.

④ ㉣‘역사’는 두음 법칙이 일어나 ‘력사’에서 ‘ㄹ’이 탈락한 것이며, ‘이별’도 두음 법칙이 일어나 ‘리별’에서 ‘ㄹ’이 탈락한 것이다.

6. [정답] ④

‘눈에 열정이 가득하다.’에서 ‘열정(熱情)’[열쩡]은 한자어에서 받침‘ㄹ’ 뒤에 ‘ㅈ’이 연결되어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이므로 ㉣에 해당하는 예시이다.

① ㉠: ‘밥상’은 ‘ㅂ’ 받침 뒤에 ‘ㅅ’이 된소리로 발음되어 [밥쌍]으로 발음한다.

② ㉡: ‘감고’는 ‘ㄱ’ 어간 받침 뒤에 첫소리가 ‘ㄱ’인 어미가 와서 [감꼬]로 발음한다.

③ ㉢: ‘실수’는 한자어에서 받침‘ㄹ’ 뒤에 ‘ㅅ’이 연결되어 [실쑤]로 발음한다.

⑤ ㉤: ‘갈 수’는 관형사형 어미 ‘-ㄹ’ 뒤에 ‘ㅅ’이 와서 [갈쑤]로 발음한다.

7. [정답] ①

<보기>의 표준발음법 제4장 제12항은 거센소리되기 현상과 관련된 규정이다. ‘잠가’는 용언의 어간 ‘잠그-’에 어미 ‘-아’가 결합하여 ‘잠가’가 되는 과정에서 어미의 모음 ‘ㅡ’가 탈락하는 모음 탈락 현상이 일어난다.

② ‘밝히다’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[발키다]로 발음한다.

- ③ ‘좁히다’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[조피다]로 발음한다.
 ④ ‘넓히다’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[널피다]로 발음한다.
 ⑤ ‘행복하다’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[행보카다]로 발음한다.

8. [정답] ④

(예 3)의 ‘차- + -아 → 차’에서는 ‘ㅈ’탈락이 일어났으나 ‘기쁘다’는 ‘기쁘- + -어 → 기뻐’에서는 ‘ㄴ’탈락이 일어났으므로 (예 1)에 해당한다.

- ① <보기>는 원래 있던 음운 하나가 발음되지 않는 현상인 음운의 탈락 중 모음 탈락을 설명한 것이므로 적절하다.
 ② ‘아프다’를 활용한 ‘아파서’는 (예 1)과 같은 변동이 일어나는 단어로 ‘아프- + -아서 → 아파서’에서 ‘ㄴ’탈락이 일어났다.
 ③ ‘켜다’를 활용한 ‘켜도’는 (예 2)와 같은 변동이 일어나는 단어로 ‘ㄱ/ㅇ + -어도 → 켜도’에서 ‘ㄱ’가 하나 탈락하므로 적절하다.
 ⑤ (예 1), (예 2), (예 3)으로 보아 모음 탈락은 음운 변동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해 소리 나는 대로 쓰므로 적절하다.

9. [정답] ③

‘해돋이’는 [해도지]로 발음되며 끝소리 ‘ㄷ’이 모음 ‘ㅣ’를 만나 ‘ㅈ’으로 발음된다. ‘쇠붙이’는 [쇠부치]로 발음되며 끝소리 ‘ㅌ’이 모음 ‘ㅣ’를 만나 ‘ㅈ’으로 발음된다. 따라서 모두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난다.

- ① ‘훈련, 신라’는 유음화 현상이 공통적으로 일어나 [홀련], [실라]로 발음한다.
 ② ‘생겼는데, 광민지’는 비음화 현상이 공통적으로 일어나 [생견는데], [광민지]로 발음한다.
 ④ ‘할 것을, 물상식’은 된소리되기 현상이 공통적으로 일어나 [할꺼슬], [물쌍식]로 발음한다.
 ⑤ ‘파랗다, 싫다’는 거센소리되기 현상이 공통적으로 일어나 [파라타], [실타]로 발음한다.

10. [정답] ①

‘뒹개’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 현상이 연이어 일어난다. ‘낯잡’도 [낯잡] → [낯짹]으로

소리 나는 과정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 현상이 연이어 일어난다.

- ② 홀이불: [홀이불](음절의 끝소리 규칙) → [홀니불](ㄴ 첨가) → [홀니불](비음화)
 ② 반려 식물: [발려 식물](유음화) → [발려 식물](비음화)
 ④ 따듯한: [따뜻한](음절의 끝소리 규칙) → [따뜨탄](거센소리되기)
 ⑤ 따라잡습니다: [따라잡습니다](된소리되기) → [따라잡습니다](비음화)

11. [정답] ⑤

‘만형[마형]’은 받침 ‘ㄷ’이 뒤 음절 첫소리 ‘ㅎ’과 결합하여 두 음을 합쳐서 [ㅌ]으로 발음하는 거센소리되기에 해당한다.

- ① ‘숨이불’은 ㄴ 첨가 현상으로 [숨 : 니불]로 발음한다.
 ② ‘되어’는 반모음 첨가 현상으로 [되여]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.
 ③ ‘내복약’은 ㄴ 첨가 현상으로 [내 : 봉약]으로 발음한다.
 ④ ‘발이랑’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ㄴ 첨가의 영향으로 [발니랑]이 되고, 이후 비음화가 일어나서 [반니랑]으로 발음한다.

12. [정답] ②

‘숯가마’에서는 ㉠음절의 끝소리 규칙(숯가마 → [숯가마])과 ㉡된소리되기 현상([숯가마] → [숯가마])이 일어나므로 ②번이 적절하다.

- ① 닳는[당는]: ㉠음절의 끝소리 규칙, ㉢비음화
 ③ 아파도[아파도]: ㉠모음 탈락(‘ㄴ’탈락)
 ④ 달히다[다치다]: ㉠거센소리되기, ㉠구개음화
 ⑤ 깨끗하다[깨끄타다]: ㉠음절의 끝소리 규칙, ㉢거센소리되기

13. [정답] ①

① ‘갈 건데[갈건데]’는 관형사형 어미 ‘-(으)ㄴ’ 뒤의 ‘ㄱ’이 된소리로 소리 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.

- ② ㉡‘말이[마지]’는 끝소리 ‘ㄷ’이 모음 ‘ㅣ’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‘ㅈ’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.

- ③ ㉠‘열정[열뽕]’은 한자어에서, 끝소리 ‘ㄹ’ 뒤의 ‘ㅈ’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.
- ④ ㉠‘닫는다[단는다]’는 끝소리 ‘ㄷ’이 뒤에 오는 비음 ‘ㄴ’의 영향으로 ‘ㄴ’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비음화가 일어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.
- ⑤ ㉠‘집안일[지반닐]’은 합성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‘ㅣ’로 시작할 때 ‘ㄴ’ 소리가 첨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.